

## 「대한민국 대중부유층의 자산관리와 디지털 금융 이용 행태」

**1년 새 대중부유층의 총자산은 17.3% 증가, 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 상승  
95.1%가 금융 앱 사용, 80.3%가 상품투자·자산관리에 디지털 활용**

-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경영연구소(www.wfri.re.kr)는 12월 7일 “대중부유층의 자산관리와 디지털 금융 이용 행태” 보고서를 발간
  -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2019년부터 대중부유층 분석 시리즈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는 “디지털 금융”을 특별 주제로 대중부유층의 인식과 이용행태를 분석한 세 번째 보고서를 발간
  - 소득 상위 10~30%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중부유층으로 정의하고 동 기준에 해당하는 전국 4,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9~10월에 걸쳐 설문조사 실시
    - \* 세전 가구연소득 기준 7천만원 이상, 1억 2천만원 미만
    - \* 응답자의 통계적 특성은 “[붙임1] 응답자의 통계적 특성” 참조
- 2020년 대중부유층의 순자산은 자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약 1억 1,400만원 증가
  - 총 자산 7억 6,500만원 중 부채 1억 1,900만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6억 4,600만원으로 조사 (그래프1)
    - 부동산자산은 6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,600만원(14.3%), 금융자산은 1억 2,600만원으로 2,400만원(24.1%) 증가(그래프2)
    - 총 자산 중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의 비중은 각각 18.9%, 76.6%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편중 현상을 보임
  - 부채 총액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(카드론 포함) 잔액은 증가

## ■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식 비중의 증가

- 금융자산 중 예적금의 비중(45.0%)이 지난해보다 5.0%p 감소한 반면, 주식은 3.0%p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15.4%를 차지(그래프3)
  - 주식을 보유한 응답자는 2019년 1,862명에서 2,099명으로 11.3% 증가하였으나, 펀드·랩 등 간접투자상품, 파생결합증권 보유자는 각각 13.5%, 11.7% 하락하여 최근 WM 시장에서 발견된 직접투자 선호 경향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냄
- 향후에도 주식 비중은 늘리고 예적금 비중은 더욱 낮추기를 희망
  - 2019년 조사에서는 향후 주식 비중을 1%p 가량 줄이겠다고 응답한 반면, 올해는 현재보다 주식 비중을 1.7%p 상향시켜 포트폴리오의 17.1%까지 확대하겠다고 답변(그래프4)

## ■ 대중부유층은 지난해에 비해 위험지향적 투자성향이 강해지는 경향

- \* 투자성향은 위험선호도에 따라 안정형, 안정추구형, 위험중립형, 적극투자형, 공격투자형의 5단계로 분류
- 2019년에는 저위험을 추구하는 안정추구형과 안정형이 약 60%를 차지한 반면, 올해 동 비중은 41.2%로 축소되고 적극투자형과 공격투자형이 33.7%로 전년보다 10%p 증가(그래프 5)
  - 이는 시중금리가 낮아져 이전 수준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위험 감수가 불가피해진 금융 환경에 기인
- \*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2019년 3분기 1.59%에서 2020년 3분기 0.84%로 급락

## ■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중부유층의 디지털 금융 이용이 보다 활성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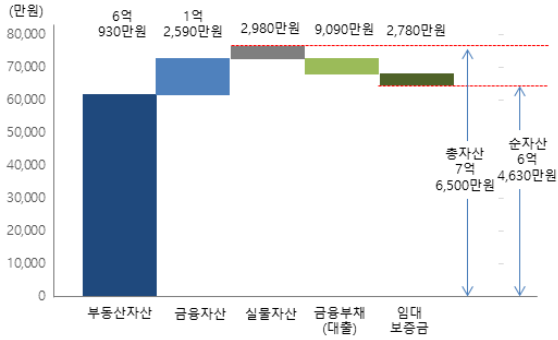
- 설문 대상자의 44.3%가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디지털 금융 이용도가 증가했다고 응답(그래프6)
- 인터넷,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자산관리 채널 이용 경험자 비중은 2019년 11.0%에서 올해 56.5%로 대폭 상승(그래프7)

## ■ 대중부유층은 디지털 금융 활용에 적극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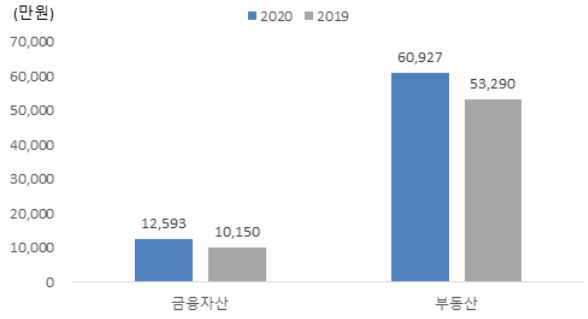
- 응답자의 95.1%가 금융앱을 이용 중이며, 금융거래 시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비중은 73.8%
- 대중부유층을 디지털 금융 서비스 이용 범위에 따라 ① 단순거래형(Level1), ② 상품투자형(Level2), ③ 자산관리형(Level3)으로 분류했을 때 대부분이 Level2 이상으로 활용 중
  - 이체, 조회 등 단순 기능만을 이용하는 단순거래형은 19.5%, 금융상품 가입·대출 신청과 관리까지 이용하는 상품투자형은 53.0%, 자산관리 서비스까지 활용하는 자산관리형은 27.3%
- 69.7%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모바일앱에 만족을 나타냄

- **대중부유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모바일 자산관리 기능은 ‘개인 맞춤 상품 추천’**
  - ‘개인 맞춤 상품 추천’ 20.0%, ‘금융상품 정보’ 17.8%, ‘소비 지출 관리’ 14.2%, ‘자산 포트폴리오 설계’ 13.2% 순으로 개인화된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큰 것으로 분석(그래프8)
- **모바일 앱 기능이 주거래 금융회사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부상**
  -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뛰어난 모바일 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주거래 금융회사를 변경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디지털 금융 활용도가 높은 자산관리형에서는 동비율이 66.7%(‘있는 편이다’ 57.4%, ‘매우 있다’ 9.4%)로 급상승(그래프9)
- **오픈뱅킹 이용은 활발하지 않으나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높음**
  - 오픈뱅킹 이용자는 35.0%이며, 핀테크보다는 은행(86.6%)을 주로 이용
  - 응답자의 88.6%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개시되면 이용할 의사가 있으며, 서비스 종류별로는 자산형성 지원 26.6%, 세제 혜택 정보 17.0%, 노후설계 14.0%, 소비습관 가이드 11.2% 순으로 관심을 보임(그래프10)
- **향후 디지털 금융 서비스 브랜드로 가장 기대되는 것은 카카오뱅크이며, 네이버에 대한 기대치도 높게 나타남**
  - 브랜드별로는 카카오뱅크와 네이버가 각각 27.8%, 13.4%의 선택을 받으며 상위권에 랭크
  - 업종별로는 기존 금융사와 인터넷 전문 금융사가 40.6%, 39.3%로 유사한 수준
- **금융회사 자산관리 서비스 신뢰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직원의 전문성과 양질의 금융상품 판매**
  - 직원의 전문성(31.5%), 양질의 금융상품 판매(30.2%)가 신뢰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적절한 사후관리(18.2%), 규정에 따른 완전판매(9.7%)는 다소 순위가 떨어짐(그래프11)
- **대중부유층의 금융자산 증가 추이, 높은 디지털 금융 활용도는 자산관리 영업의 기회 요소로, 금융회사는 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성 높은 인력과 우수한 금융상품으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려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함**

[그래프 1] 응답자의 평균 자산·부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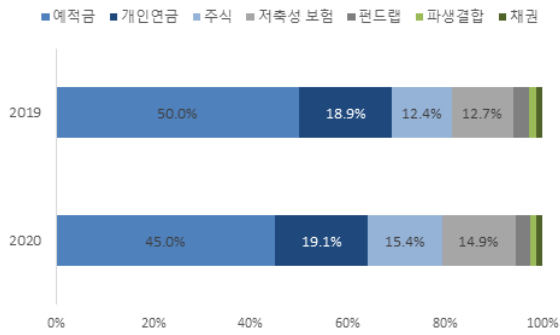


[그래프 2] 항목별 총자산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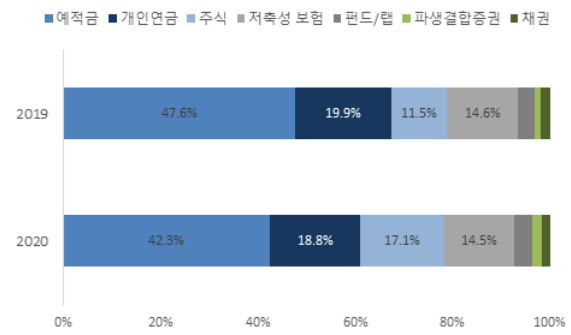


주: 막대 위 숫자는 필요생활비 (단위: 만원)

[그래프 3] 금융자산 비중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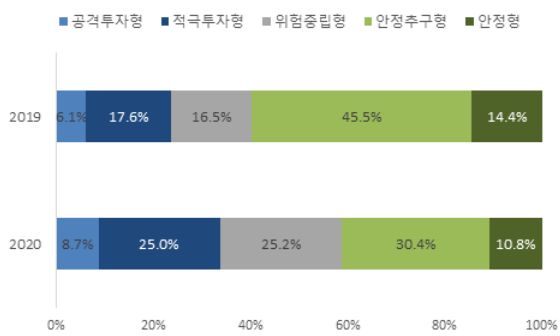


[그래프 4]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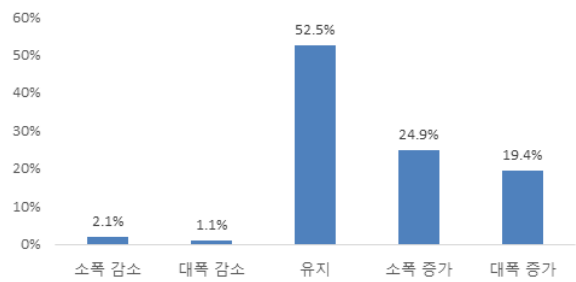


주: 여유생활비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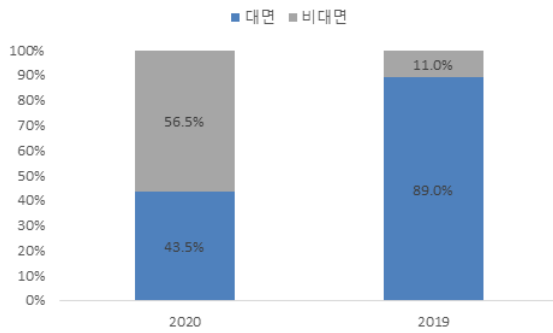
[그래프 5] 투자성향 변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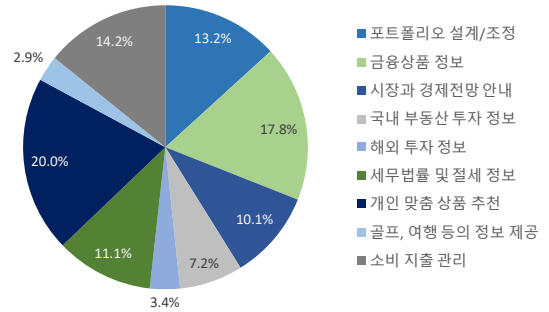
[그래프 6] 코로나 이후 디지털 금융 이용 비중 변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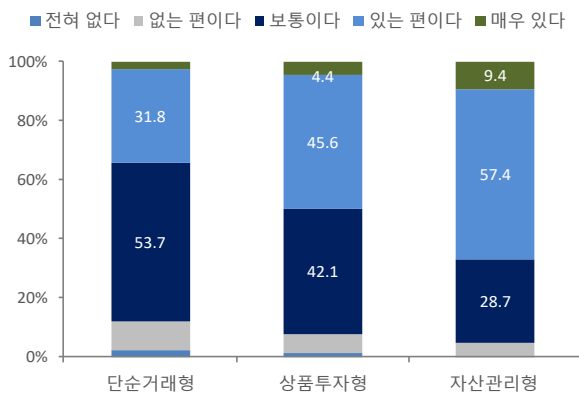
[그래프 7] 자산관리 채널 변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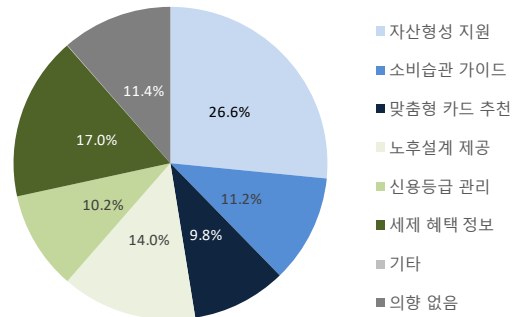
[그래프 8] 필요한 모바일 자산관리 기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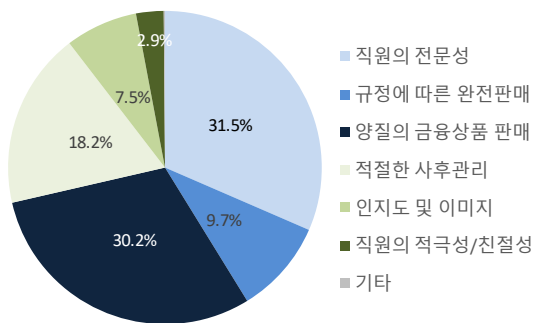
[그래프 9] 디지털 이용자별 거래 기관 변경 의향



[그래프 10] 마이데이터 이용 의향 서비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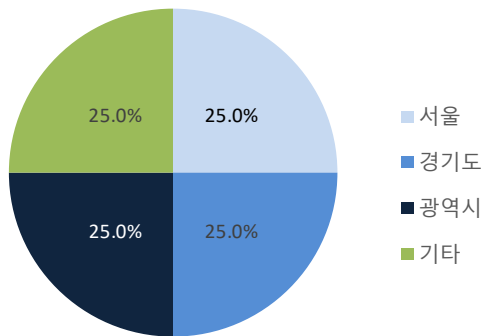


[그래프 11] 금융기관 신뢰도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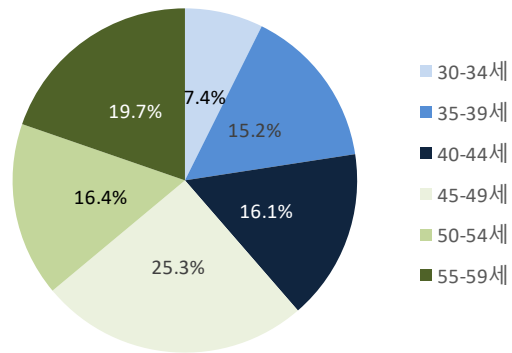


- 지역별로 서울, 경기, 6대 광역시, 기타지역의 응답자가 각각 25.0%로 고르게 분포
- 연령은 가정 내에서 경제활동 담당하는 주소득자를 기준으로 30~59세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40대 비중이 41.4%로 가장 높고 50대 36.1%, 30대 22.6% 순

지역별 분포



연령대별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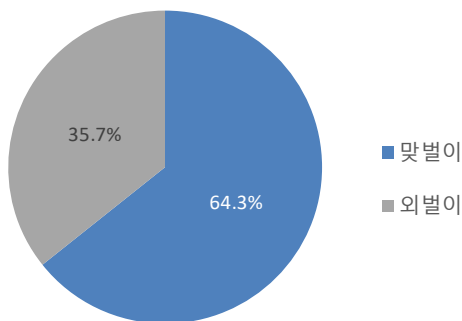


- 맞벌이 가구 비중은 64.3%로 일반적인 가구 평균 46.0%\*보다 높은 편으로 이는 소득이 높은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설정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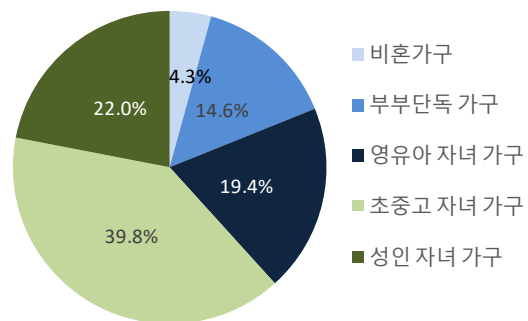
\* 통계청 '2019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'에서는 유배우자 가구 중에서 맞벌이 가구 비중을 산출하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비혼 가구를 외별이로 분류

- 가족생활주기별로는 초중고자녀가구가 39.8%로 가장 많았으며 성인자녀가구 22.0%, 영유아 자녀가구 19.4%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고, 부부단독가구(14.6%)와 비혼가구(4.3%)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

소득원수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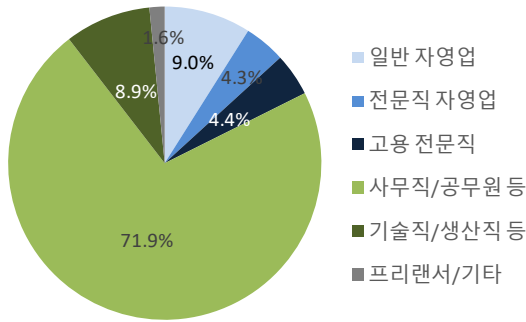


가족생활주기별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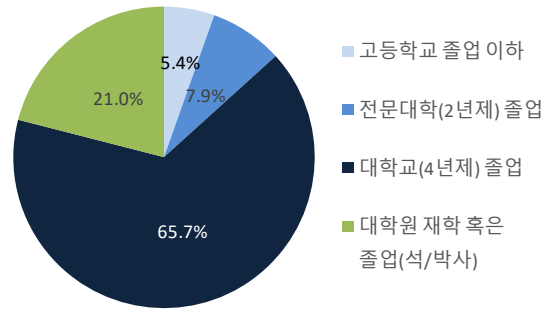


- 직업별로는 사무직·공무원 등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비율이 71.9%로 가장 높았고 일반 자영업 (9.0%), 기술직·생산직 근로자(8.9%), 의사, 변호사 등 전문 고용직(4.4%) 순으로 집계
- 주소득자의 86.7%는 대졸 이상의 학력자로 조사되어 국내 대졸 이상 학력자 비율 49.0%<sup>1)</sup> 대비 고학력자 비율이 높음

주소득자 직업별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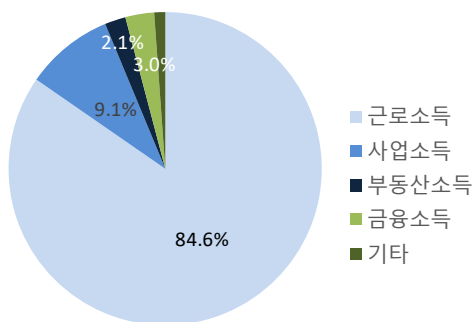


주소득자 학력별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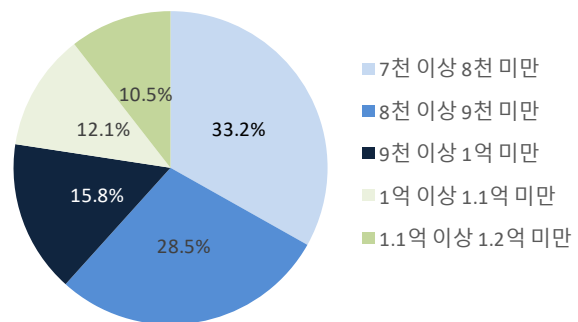


- 총 연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이 84.6%로 소득의 대부분을 급여를 통해 버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 사업소득이 9.1%, 금융소득이 3.0%, 부동산소득이 2.1%를 차지
- 연소득은 '7,000만원 이상 8,000만원 미만'이 33.2%로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'8,000만원 이상 9,000만원 미만'이 28.5%, '9,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'이 15.8%, 1억원 이상이 22.6%로 분포

소득원별 분포



소득구간별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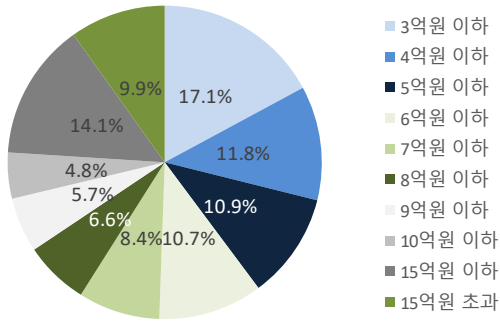


-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총자산 규모가 3억원 이하인 응답자가 17.1%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10~15억원(14.1%), 3~4억원(11.8%), 4~5억원(10.9%) 순으로 나타남

1) e-나라지표 '2018년 학력별 인구분포' (24~64세 인구를 조사한 OECD 'Education at a Glance' 재인용)

- 소득과 자산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분류한 소득자산군별 응답자 비중은 고소득고자산(30.2%), 중소득중자산(29.9%) 비중이 중소득고자산(20.0%), 고소득중자산(19.9%) 비중보다 높게 나타남

자산구간별 분포



소득자산군별 분포

